

2025 04

통권 300호

티옴

안동교구 사람 사는 이야기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contents

- 01 마음이 머무는 자리 1p
- 02 소공동체 기도 2p
- 03 2025년 교구 실천사항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6p
- 06 청년-미래세대에게 듣는다. 8p
- 07 건강한, 신앙생활 10p
- 08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12p
- 09 공소 탐방 - **모동공소** 14p
- 10 찬미받으소서 퀴즈 16p
- 11 우리 생명 이야기 18p
- 12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0p
- 13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22p
- 14 책속의 향기 24p
- 15 **부르심**
- 16 사제의 단상 26p
- 17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8 **그분과 함께** 30p
- 19 **알림** 32p



'티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짝을 티우고
열매맺도록 도움을 주는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퍼넌곳 천주교안동교구사무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표지사진: 조희열 바오로
(안동교회사 연구소 책임연구원)

"모든 피조물은 저와 비슷한
존재를 사랑하고
모든 인간은 제 이웃을
사랑한다."

집현서 13장 15절

성경 말씀은 춘양 본당 허태임 플로라님의 손글씨입니다.

플로라님은 식물분류학자로 경북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사라져가는 우리 식물에 대한 보전 연구를 합니다. 안동교구 주보에 <플로라의 초록목록>을 격월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식물분류학자 허태임의 나의 초록목록(김영사, 2022)>이 있습니다.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과학적인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저와 비슷한 존재”와 “제 이웃을” 더없이 사랑합니다.

소공동체 기도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당신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눈물을 나누셨던 주님.

저희도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신앙과 고통과 기도를 나누면서

참된 형제애를 느끼고 성령 안에 일치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생명이 저희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서로 형제된 기쁨으로

친교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실천사항 1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교구

- 교구장 농민회 분회 방문
-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권유
- 생명 농산물 이용에 대한 지속적 교육
- 생명농업 마중물 가농소 입식운동 지원

본당

- 농민을 위한 기도
- 본당과 공소(분회)의 지속적인 자매 결연
- 본당 행사 때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 공소나 지역에서 생산한 나눔 장터, 텃밭 가꾸기

가정

- 농민을 위한 기도
- ‘우리 농산물 < 지역 농산물 < 생명 농산물’을 이용한 밥상
- 밥상 손수 차리기(배달 음식 줄이기)
-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육식 줄이기

농민

- 탄소 중립을 위한 농사(자급 퇴비, 비닐 사용 줄이기)
- 자연 환경과 농촌 지키기 실천
(제초제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 실천사항 2

청년을 위한 청(聽)년
(A year of Listening for youth)

- 안동교구 청년을 위한 기도
- 각 가정, 본당의 청년 발굴
- 지구 청년 담당 사제 선정
- 지구 차원의 청년 모임 활성화
- 청년과 사제, 수도자와 함께 하는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나누기

「찬미받으소서」가 공동의 집을 지켜야 할 환경 보호의 대전제를 다뤘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기후 위기의 위험성과 인류 위기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이를 읽고 나눔으로서 생태적 회심을 이루도록 합시다.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소공동체의 기도(2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말씀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두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기후 위기에 관한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제1장
저항과 혼란

10.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더 깨끗한 형태의 에너지를 개발하여 기후 변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기후 변화의 다양한 영향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수면의 상승, 가뭄과 지구를 덮치는 여러 다른 현상들은 많은 사람을 떠돌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재생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기후 변화의 피해에 대응하려는 다른 노력들도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곧바로 이 문제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안동 감목대리구에서 안동자치교구로”(1)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안동감목대리구장 구인덕 신부는 1966년 청송본당 축복식 당시 대구대교구 서정길 대주교로부터 대리구 관할구역을 그린 지도를 받았다. 그 지도에는 예천, 영주, 안동, 청송, 포항(영일 포함), 영덕, 영양, 봉화 등 8개 군이 그려져 있었다. 이는 안동감목대리구의 관할지역이 바로 8개 군이었음을 의미한다. 대리구 지역은 역삼각(▽) 모형이었다. 물론 당시 각 본당신부들은 모두 대구대교구 소속이었다.

그 가운데 포항과 영일군이 후에 대구대교구로 이양되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무슨 특별한 계약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당시 떠다니는 후문에 따르면, 대구대교구는 포항과 영일군을 대구대교구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의성과 왜관감목대리구 소속이었던 상주와 문경지방을 안동교구 관할지역으로 편입하였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러한 후문도 그저 후문일 따름이고, 정확한 연유는 오늘날까지도 비밀에 부쳐져 있다.

감목대리구에 속한 본당이 축복식을 거행할 때마다 대구대교구 서정길 대주교는 언제나 참석하였다. 1966년 청송본당 축복식 후, 서정길 대주교는 구인덕 신부에게 안동교구 설정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겠다면서, 초대주교는 파리의 방선교회 소속 신부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서류를 작성하여 그 서류를 교황청에 보낸 뒤, 포항과 영일군은 대구대교구로 이양하였고, 우선 의성군이 안동교구로 넘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일설에 따르면, 당시 한국주재 교황대사는 크게 화를 내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대구대교구에서 교황대사관의 허락 없이 안동교구 설정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교황청으로 보내었기 때문이다. 교

황대사는 당시 구인택 신부에게 “의성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왜관감목대리구 관할이었던 상주와 문경이 안동교구로 편입된 것은 그 후의 일이었는데, 당시 의성군에는 본당이 2곳(의성과 다인)이 설립되어 있었다.

1969년 왜관감목대리구 관할이었던 상주와 문경지역이 안동교구로 편입되었는데, 그것은 1968년에 대구대교구와 왜관의 성 베네딕도회 수도원과의 사이에 20년의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대교구가 교황청에 안동교구 설정을 요청하였을 때, 상주와 문경군이 제외되어 있었지만, 당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안동교구가 “그 면적이 너무 작으니 상주와 문경을 안동교구로 편입하면 좋겠다.”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그리 녹녹치마는 않았다. 교구경계를 나누는 문제로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당시 왜관감목대리구에서는 그에 따른 반발이 극심하였다. 즉 “대구대교구 서정길 대주교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의 오토 아빠스 사이에 20년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왜 파리외방전교회가 들어서서 왜관을 곤란하게 만드느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당시 원주교구 관할이었던 울진군은 안동교구가 설정될 때부터 안동교구로 편입되었고, 상주와 문경지역이 안동교구로 편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성 베네딕도회 소속 본당신부들은 상주와 문경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다만 1969년 당시 사제들이 부족하였던 안동교구로서는 몇몇 베네딕도회 소속 신부들이 일정기간 본당사목을 맡아 줄 것을 안동교구가 요청하였고, 그리하여 왕묵도 신부(함창본당)와 송만협 신부(화령성당)가 얼마동안 남아서 계속하여 일정정도 본당사목을 맡게 되었다. 이후 대구대교구 소속이었던 김옥태(1934-2024)신부가 안동교구 소속이 되었으나, 사제부족은 한동안 지속되었고 구인택 신부의 고민은 깊어졌다.

다음호에 계속~~~~

청년회에 대한 우리의 시선

문경지구 청년회장
함창 본당 오창현 대건 안드레아

2014년 스무 살. 성인이 되어 나는 대학 입학 을 위해 본가를 떠나 멀리 떨어진 충청남도 로 가게 되었다. 집에서 기차를 타고 김천을 지나 천안으로 가는 약 4시간 반 정도의 먼 거리였다. 대학 입학 이후 동아리 홍보회에서 가톨릭 동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중 우연히 대가대협(대전교구 대학생 가톨릭 협의회)에서 제의가 들어와 임원을 맡게 되었다. 그렇게 2019년 한 해 동안 임원으로서 활동하며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마무리될 때쯤 좋은 추억으로 남으며 내 안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대학 시절 좋았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졸업하고 6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오랜만에 나온 성당은 예전과는 느낌이 사뭇 달랐다. 중·고등학교 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또래들도 타지로 떠나거나 성당에서 보이지 않았고, 오랜만에 돌아와 어색함을 느끼던 와중 나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준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예전 내가 중·고등학생이던 시절 대학생이었던 형, 함께 성당을 다녔던 친구, 동생 등 내가 알던 몇몇 사람들이 성당을 다니며 남아 있었다. 오랜만에 돌아온 나를 반겨주며 그들과 함께 본격적인 청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년회’.

20대부터 30대, 많게는 40대까지 본당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모임으로 이름

만 들었을 땐 ‘성당 안의 모임이니 신앙이 깊고, 괜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카페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하며 시간을 보내듯이 청년회 활동도 크게 다르진 않다. 주일 성당에 나와 미사를 드리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카페를 가고 가끔은 시간을 맞춰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거창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또래 청년들이 성당이라는 품 안에서 만나 어울리는 분위기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하다 대학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성당 활동이 뜸해지며 냉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종종 있다. 성당 나오는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 놀거나 여행을 가는 등 바쁘다는 이유에서였다. 왜 성당에 나오면 하지 못한다 생각할까? 청년회는 그들에게 무슨 모습으로 비춰지는 걸까?

대학교에서 방학이 되어 본가로 내려온 경우,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 ‘청년회’라는 이름만 듣고 부담을 가졌던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와서 성당을 나오기 어려웠던 경우, 평소 바쁘단 이유로 성당에 나오기 어려웠던 경우 등 우리 주변에는 이렇듯 알게 모르게 많은 청년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오랜만에 성당 한 번 나와. 미사 드리고 맛있는 거나 먹자!” 라고 말이다. 안동교구 내 청년들이 부담스러운 마음을 내려두고 성당에 나와서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들, 또래 신자들, 마음 맞는 신자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성당이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언제나 모두의 마음 한 켠에 함께하셨던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본다.

불통즉통 통즉불통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용상동 본당

허준의 동의보감 잡병편에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라는 말이 있다. 기혈순환이 되지 않으면 병이 생기지만 막힌 기혈을 뚫어 통하게 하면 병이 낫는 이치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위중한 병에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있다.

심근경색은 심장의 관상동맥이 점점 좁아지다가 막혀서 심장근육이 움직이지 않아 심장마비로 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뇌경색은 중풍으로 뇌의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뇌조직의 일부가 죽어서 제 기능을 못하여 가벼운 반신마비가 오기도 하고 심하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모두 혈관이 막혀서 오는 병인데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운동과 올바른 섭생(攝生)을 통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관이 막혔을 때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지 않고 응급수술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것이다. ‘불통즉통’은 바로 막힌 것을 뚫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혈액의 흐름은 맥박이나 혈압측정 혈액의 성분분석 수치 등으로 객관화 할

수도 있고 볼 수 있지만 기(氣)의 흐름은 알기 어렵다. 물론 안색을 살핀다거나 행동을 보고서 활력 정도를 알 수 있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과 정신적인 장애들은 마음의 눈이나 전문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고서는 잘 알 수 없다.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것과 얼굴에 핏기가 없다거나 기력이 쇠해 보인다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가 막혀서 생기는 병이나 정신장애로 인해 생기는 기의 소통장애는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면 기가 막힌다는 표현을 하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또 나쁜 환경에 처해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운이 빠지게 되면서 무기력하게 된다. 기는 마음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느끼는 기분(氣分)이라는 것도 기가 막히지 않고 잘 통할 때라야 좋아지는 것이다. ‘통즉불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맑은 기운이 가득차서 안색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느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시면 좋은 기운이 늘 살아나게 되어있다. 건강하게 잘 살아간다는 것은 온몸에 좋은 기가 충만하고 혈액이 잘 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불통즉통이고 통즉불통’이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A misty mountain landscape with a small village in the foreground and a large tree on a hill.

잠에서 깨어나는 생활
죽음에서 일어나는 생활은
부활을 일상에서 사는
눈을 뜨는 생활이다.

이 생활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두루 비추는 일에서 시작된다.

만남이라는신비, 권혁주 요한 크리스소스토모 주교 지음

화령 본당 모동공소

Q : 모동 공소에서 신앙 생활을 하며 기억에 남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우 1 : 우리 모동 공소의 설립은 1961년으로 돼 있다고 해요. 제가 성당에 다닌 것은 1970년도 초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소가 만들어진 지 한 10년 정도 더 지난 때였는데 그 당시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 신부님과 두 분의 외국인 신부님들이 계셨다는데, 저는 도요한 신부님이 계실 때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80년도에 화재로 한옥 건물이 소멸되고 다시 지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계시던 분들은 지금 몇 분 안 계십니다.

교우 2 : 옛날에는 학생들도 참 많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행사를 위한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신자들의 가정용 일일이 방문해서 음식도 나눠 먹으며 함께 기도하던 기억이 납니다. 화재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성당도 새로 짓게 되어 좋았지요. 지금은 신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3 : 우리 동네의 특징은 옛날부터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옛날에 계시던 신부님들과 외국 신부님들이 미사주가 필요하니까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 분들은 물 대신 음료수로 포도주 와인을 드시니까 그래서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도가 유명해졌습니다.

Q : 우리 공소에는 귀농하신 분들이 많은데 공소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우 4 : 이곳에 오기 전 코로나 때문에 교리가 중단되었는데 이곳에 와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고가 전혀 없는 곳이라 처음 귀농했을 때 시골 생활과 농사에 서툴고, 특히 사투리가 너무 낯설어 못 알아들어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당에 안 다녔으면 바로 돌아갔을 겁니다. 공소 신자분들께서 많이 알



려주시고 도와주셨지요. 저희를 가족 대하듯 진짜 가족처럼 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교우 5 : 귀농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원래 있던 분들과 어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마을 분들 모두 다 농업에 종사하셔서 집들이 일부는 모여 있지만 우리 사는 동네만 해도 띄엄띄엄 있어서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성당에 다니다 보니 교우들이 이것저것 잘 챙겨주시고, 성당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우리 동네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쉽게 인정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공소에서 신앙생활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우 6 : 저는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내려온 지 10년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돌아보면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좋은 교우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제가 힘들 때마다 도움을 받아서 우리 공소에서 뼈를 묻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셨지만 한 가족 전체를 제가 성당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자매님 한 분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소에 대해서 많은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Q : 우리 공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7 : 지역 특성으로 포도의 주산지가 되어 많은 분이 귀농하면서 우리 공소에도 젊은 분들이 많아져 활기가 생겼습니다. 30년여 전에 저 담장을 500만 원 들여 쌓았는데 몇 년씩 마을 사람들이 적금을 들어 공소 신자들의 힘으로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만나의 집’과 성모 동산은 본당의 도움 없이 온전히 우리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소 신자들은 이곳을 ‘나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의 집’을 지을 때 젊은 40여 명의 분도 회원과 작업을 함께하며 신앙 공동체가 힘을 합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찬미받으소서 151항-160항

151항 도시와 농어촌의 경관을 바꾸는 경우에 지역의 ()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52항 ()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대도시만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심각합니다.

153항 많은 도시들에서 사람들은 과밀, 불편, 긴 배차 간격, 불안 때문에 ()을 견뎌야만 합니다.

154항 농어촌에는 기본적인 공공시설이 없고 좀 더 ()한 삶의 권리나 희망 없이 노예의 처지로 추락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155항 우리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조물을 () 다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156항 ()은 “집단지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의 조건의 총화”입니다.

157항 공동선은 사회 평화, 곧 특정 질서의 ()과 확실성을 필요로 합니다.

158항 공동선의 원리는 곧바로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로 연대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으로 전환됩니다.

159항 세대 간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160항 우리는 어떠한 ()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1.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으면서 비어 있는 괄호를 채웁니다.
2. 오른쪽 퍼즐 속에 숨어있는 위의 단어들을 찾습니다.
3. 16-17쪽을 사진 찍어서, 사목국으로 보냅니다.
4.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4월 30일까지 보내주세요

사목국 전화 054-858-3114, 010-9853-3066

이메일 sa3119@nate.com

보내실 때 정답, 성명, 세례명, 본당명,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천	교	정	의	조	희	신	여
품	위	없	는	대	접	러	굴
안	선	돌	군	철	요	횡	사
레	동	성	적	소	달	령	마
릭	공	원	목	농	시	음	환
택	선	적	선	우	대	존	구
가	수	모	권	로	도	간	엄
주	택	부	족	롤	안	정	옥

2월 당첨자

채한출 안토니오 (모전동 본당)

김순자 카타리나 (개운동 본당)

김희옥 크리스티나 (개운동 본당)

류동찬 바오로 (송현동 본당)

김창희 나탈리아 (하망동 본당)

지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20 -똥 살리기 1-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하망동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근대 산업 문명은 땅속에 그대로 있어야 할 화석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고, 지하자원(광물자원)을 함부로 채굴해서 수많은 고층 빌딩과 공장을 짓고 자동차와 컴퓨터 등 술한 물건들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유독성 화학물질들로 인해 사람들은 암과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와 같은 문명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삶을 강요하는 근대 산업 문명은 “미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아니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잔혹한 족쇄라고 나쓰메 소세키가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조차 없는 기후 변화를 일으켜 6차 대멸종을 향해 나아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자랑하던 근대 산업 문명은 자살 문명, 멸종 문명임이 확인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깨트린 자업자득입니다. 그 자업자득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1.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상징인 수세식 화장실

지금 청소년들뿐 아니라 성인들 또한 재래식 화장실에서 볼일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학교나 공용화장실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도 더럽다고 가지 않고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히 정신병 수준으로까지 치닫는 기이한 위생 관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똥 자체를 혐오하고 더러운 쓰레기이자 불결하고 또 병원균이 득실대는 오염 물질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인식입니다. 도대체 에너지이자 비료로서 아주 훌륭한 유기물질인 사람 똥을 애써 엄청난 돈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하는 이런 멍청한 짓이 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뿐만 아니라, 도시 문명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수세식 화장실은 근대화의 산물

두말할 필요도 없이 수세식 화장실은 근대화의 산물입니다. 근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목표는 근대화, 현대화, 서구화였습니다. 서양의 근대 산업 문명을 지고지선(至高至善)의 모범으로 삼아 허리띠 졸라매고, 모든 것을 서양식 생활양식으로 흉내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 경제개발계획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략 삼사십 년 안에 우리는 마침내 꿈에도 그러던 산업화와 서구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피부 색깔과 언어, 습관, 문화 등이 다를 뿐이지 지금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모습과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매연으로 가득 찬 대도시에서 화석 연료를 태워 움직이는 자동차를 타고, 비슷한 육식 위주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십니다. 비슷한 텔레비전으로 보고, 비슷한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비슷한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비슷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도 물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근대화가 어느 정도 달성된 지금, 의식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산업 문명은 자연과 괴리된 삶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순환을 철저히 깨뜨려 버리고, 나아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 또한 단순히 로봇과 같은 기계 되어버리고만 이상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3. 똥은 훌륭한 거름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는 똥을 훌륭한 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서울 근교 농촌에서는 돈을 주고 서울 시내 똥을 퍼가서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인 조선 시대 이전부터 사람 똥이나 가축 똥은 재나 왕겨, 각종 음식쓰레기, 벼짚이나 풀 등과 함께 섞여 퇴비로 변해 논밭의 주요한 영양 공급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똥을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집에 가서 누면 어른들의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통시라 하여 뒷간이 바로 돼지집이었고, 사람 똥이 돼지의 주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밥이 똥이고, 똥이 논밭과 돼지의 밥이었던 겁니다.

소개합니다.-천주교 안동교구 역사관

안동 교구청 최초 타자기

(1950년대 너비 52.5cm * 폭 31.5cm * 높이 12.5cm)



안동 교구청에서 최초로 사용한 타자기로 사용 시기는 안동 감목대리
구 시절 (1956~1969)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타자기는 일반화된 최초
의 한글 타자기인 공병우 타자기로 미국 SMITH-CORONA 제품이다.

공병우 박사는 한국 최초의 안과 전문의였으며, 최초로 3벌식 타자기
를 발명해 평생 한글 기계화 운동에 앞장선 분이다.

이 타자기의 특징은 초성, 중성, 종성 3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즉 초성의
ㄱ과 받침의 ㄱ 모양이 달라서 글자체가 예쁘다. 2벌식 타자기가 나오면
서 사라졌다. 초기의 공문과 ‘공소사목’의 전신인 ‘미사해설’ 등을 작성한
교구 초기의 열의와 역사를 가득 품고 있는 타자기이다.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는 즐거움

조희열 바오로
안동교회사 연구소 책임연구원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사와 향토사를 연구하는 상주 서문동 성당의 조희열 바오로입니다.

세례

어릴 적 퇴강 성당에 여자 선교사가 한 분 계셨는데 겨울철 농한기가 되면 저희 종가에 오셔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며 밤마다 옛날 이야기하듯 성경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종갓집 며느리인 어머니와 저, 동생, 셋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종갓집 며느리가 성당에 다닌다고 나무라실 때 우리 집안 어른들이 들어온 천주교회에 나가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교회사 연구로의 이끄심

중학교 세계사 시간에 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관한 내용을 보고 억울함이 앞서 교회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역사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였으며 직장 생활을 한 후부터는 교회사나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나 책 구입에 월급의 많은 부분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회사 연구는 오직 신앙심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고증을 위해 수차례 찾아가 확인하고 각 내용에도 각주를 달아 그 저자를 밝혀야 합니다. 안동교구는 타 교구에 비해 다소 늦은 2009년에 교회사 연구소가 설립되었어요. 만약 교회사 연구소가 일찍 세워졌다면 복자 박상근 마티아 외에도 뮌텔 주교의 기록에 실린 19분의 시복도 이루어졌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참 아쉬워요.

향토문화연구소

제가 소장을 맡았던 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일 년에 두 번 모임을 통해 연구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불교 계통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교에 의미를 두고 천주교 관련 연구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을 상대로 하는 전교는 말보다 학술적 연구를 통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지 순례단

교장으로 구성된 성지 순례단을 조직하여 꾸준히 순례해 오다가 코로나 발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서문동 신자를 중심으로 다시 순례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순례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꼭 기행문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기행문을 써야지만 비신앙인 앞에서라도 자신있게 천주교와 천주교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 역시 전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

저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물음을 갖고 생활하려고 애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율법 학자들로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에 적힌 대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해 마음을 두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칠극

판토하 지음 | 정민 옮김 | 32,000원 | 김영사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판토하(1571-1618, 방적아)가 1614년에 쓴 책으로 교만, 질투, 탐욕, 분노, 식탐, 음란, 나태 등 7가지 욕망(병든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격언과 예화를 곁들여 풀이한 수양서. 한국천주교회 창립 초기 신자들의 필독서요 기본 교리서 역할을 한 이 책은 7가지 기본 욕망을 치유하는 처방(마음을 치료하는 약)으로 겸손, 사랑, 관용, 인내, 절제, 정결, 근면을 제시한다. 한문 한글 대조 번역본의 최신 개정판으로 내면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실존적 악습과 단점, 한계를 인식하고 장점으로 승화시키도록 돕는다.

바로로떨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

부르심



산에서 든 생각

이요람 요람 신부
가톨릭상지대학교 교목처장

야트막한 뒷동산을 종종 오르곤 합니다.

그때마다 나무뿌리가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흙에 푹 파묻힌 그런 것들 말고
버젓이 사람이 오가는 길에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들 말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뿌리가 터놓은 길에 사람이 오간다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아무튼, 지금보다 좀 더 어렸던 시절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것이 보여요.
새삼 시간이 흐르고, 좀 더 변화되고, 그만큼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살아보겠어!’라고 당차게 선언하며 뺏어낸 뿌리를 보고 있으면 자연의 섭리
앞에서 두려움이라던가 경외심이라던가 뭐 그런 감정이 들어요.

우리네 삶 속에서도 뜻하지 않게 뿌리를 훤히 드러내 보일 때가 있지요.
나무처럼 살아보겠다는 열망에서부터 뺏어 나온 뿌리.

산을 오르며 발에 채는 그것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욕지기가 솟는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삶, 열망, 두려움, 경외심 앞에서 어찌 그런 감정을 쏟아 놓겠어요. 그러려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내 눈에 채이고 발에 채는, 누군가의 ‘삶의 뿌리’ 앞에서도 ‘이렇게 이해해 봐야겠구나!’라는 다짐을 두게 됩니다.

요동치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 그래도 살아내야겠다며 뺀어 낸 그들의 뿌리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과 변화와 시선이 무엇을 선택하고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지요.

그때처럼, 산에서 고요히 생각했던 것처럼 섭리 앞에서, 아버지 하느님의 이끄심 안에서 그저 침묵하고 고개를 숙이고 담담히 걷다 보면 그분을 좀 더 닮아 있는 ‘나’로 성장해 있지는 않을까요?



아버지

이민우 테오필로
연구2, 봉화 본당

저 멀리 언덕에서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다른 한 남자는 멀리서 오는 그 남자를 보고 뛰어갑니다. 거리가 꽤 멀었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고 뛰어갑니다. 뛰어간 남자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떠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집 앞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보고 싶었던 마음을 눈물로 드러냅니다. 그렇게 그 둘은 한참을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이 글은 많이들 알고 계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에는 지난 개강 피정 중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묵상하며 떠오른 저의 아버지에 대해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에게 있어 아버지는 항상 묵묵히 일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말씀도 별로 없으셨고 조용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주름과 흰머리가 적으셨는데, 이제 보니 눈가의 주름과 흰머리가 무성해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릴 적에 시간이 없어 못 나눈 이야기를 신학생이 되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무뚝뚝하신 줄 알았던 아버지는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셨고, 표현이 적으시지만 술이 한 잔 들어가시면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일 마음을 울렸던 것은 가장이라는 이유로 당신이 짊어지신 짐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주기가 싫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알아가며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운동을 할 것이라며 일찍 출가했을 때도 아버지는 말없이

보내주셨고, 신학교에 입학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말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는 저를 보낼 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힘든 길을 선택하는 아들이 걱정되지만, 아들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던 아버지는 하느님께 맡기고 기도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저의 아버지는 차이가 있지만, 같은 점 하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매일 기다리고 있었기에 알 수 있었고, 제가 선택한 길을 말 없이 지지해주시는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시기에 지지해 줄 수 있었습니다.

본당 내에서도 신학생을 아들로 두고 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아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조심하고, 신부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좀 더 잘하면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느끼게 되는 것은, 제가 오히려 아버지보다 무뚝뚝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고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2025년 초등부 복사단 연수

2월 15일(토) - 16일(주일) 1박 2일 동안 농은수련원에서 초등부 복사단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복사의 마음가짐과 자세, 행렬, 미사 전례, 제구와 제의, 전례력, 성찬의 의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복사의 마음가짐과 역할을 익혔습니다. 더불어 미사 안에서 복사로서의 나의 다짐을 봉헌하고, 주교님의 축복을 받으며, 본당 돌아가서도 열심히 전례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부님을 도와 주님의 제단에서 봉사할 55명의 신입 복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대신학교 수직식 및 입학식

2월 28일(금) 11시, 3월 1일(토) 11시에 대구 남산동 대신학교에서 수직식과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김정수 그레고리오(송현동), 이민우 테오필로(봉화), 최영식 아우구스티노(휴천동) 3명의 신학생이 시종직을 받았고, 이상헌 베드로(태화동) 신학생이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교구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 림

1. 예비신학생 4월 모임

일 자 : 4월 13일(주일)

장 소 : 교구청

2. 2025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 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공문을 통해 안내 확인.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두렛배미)- 자료마당 -

서식양식자료실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3.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 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성소후원 회비 납부 현황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까지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내 본당		김건화	10,000	정경자	20,000	이영섭	20,000
가 은	396,000	김경란	10,000	정재식	50,000	전정희	5,000
계 림 동	607,000	김경란	110,000	정태진	20,000	정옥남	10,000
공 검	84,000	김경림	5,000	조원준	10,000	최은정	10,000
모 전 동	581,000	김경수	50,000	최경희	20,000	최인숙	10,000
목 성 동	1,529,000	김근희	5,000	최영옥	10,000	현희성	10,000
문 경	312,000	김길자	100,000	탁인자	30,000	황재혜	5,000
안 계	694,000	김은경	10,000	황상호	30,000		
울 진	595,000	김정은	10,000			런던 한인 성당	
의 성	1,644,500	김현정	20,000	월 모 입 편			1,532,896
함 창	1,851,000	김혜경	10,000	강면식	20,000		
후 포	639,000	박승철	10,000	김미경	60,000	성 분 도 치 과	
		박종대	10,000	설영숙	20,000		100,000
교구 내 기타		변진의	10,000	이순연	20,000		
김정현 신부	10,000	서효식	30,000	조영인	20,000	성 빈센트 병원	
백동수 신부	10,000	송은옥	10,000	최금주	100,000		20,000,000
서동호 신부	20,000	신옥선	10,000				
안영배 신부	10,000	신용찬	50,000	이 길 선 편		안 동 신 협	
윤성규 신부	20,000	안명숙	20,000	강명희	5,000		100,000
정양모 신부	100,000	안명희	30,000	권순옥	10,000		
정철환 신부	10,000	안안택	20,000	김중향	5,000	은총의 거울 Pr	
박경순	20,000	위은숙	10,000	김지은	10,000		25,000
박보라	10,000	유병현	10,000	나양수	30,000		
서영림	10,000	이귀호	10,000	박영신	10,000	정의의 거울 Pr	
신동섭	10,000	이명희	100,000	백형숙	10,000		20,000
이가엘	10,000	이임영	50,000	변우경	5,000		
		이정숙	20,000	송 경	10,000	향 주 삼 덕 회	
타교구 개인		이호숙	10,000	신미란	10,000		25,000
강윤순	15,000	장준영	10,000	양수모	10,000		
권양일	10,000	장희익	20,000	이길선	10,000		

입금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안동교구 * 입금자명을 꼭 적어주세요!!

(농협) 733-01-254416

(기업) 160-000175-04-194

(신협) 09035-12-001948

(신한) 140-005-570052

(우체국) 703439-01-004207

(지로) 7519989

* 기부금납입증서가 필요하신 분은 054-858-3114-5번으로 연락해주세요.

와오나 주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돌아올 수 없는 것에 발목이 잡혀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죽을 만큼 힘들지만
 다시 한번 주명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사바의 주님, 제 발에 힘을 주소서.

아멘

$$\frac{1}{\sqrt{\pi}} \left(\frac{x^2 - y^2}{2} + ixy \right)$$